

Robinson Crusoe가 보여주는 이데올로기의 문제

엄 용 회

I. 서 론

*Robinson Crusoe*는 무엇을 다룬 이야기인가? 종교적, 심리적, 경제적 문제 등의 다양한 주제들이 담겨 있으면서 그 각각이 서로 얽혀서 전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Robinson Crusoe*를 하나의 시각으로 일관되어 읽어내는 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Robinson Crusoe*를 여러 상이한 시각으로 읽고 있는 많은 비평들은 종종 자신의 글의 ‘한계’를 밝히기도 한다.¹⁾

그러나, 어떤 한 측면에만 주목함으로써 놓치는 다른 부분에 대한 불만은, 그 다른 부분을 살필 때의 처음의 측면을 간과하게 된다면, 역시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Robinson Crusoe*를 가장 일관되어 읽어낼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앞서 말한 작품의 특성상, 어떤 주제들이 *Robinson Crusoe*를 규정하는 틀로 읽힐 수 있는가를 대략적으로나마 살펴보는 것에서 출발하기로 하겠다.

II. 여러가지 틀의 검토

우선, 처음으로 고려될 작품의 틀은 종교적인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떠난 항해에 대한 Crusoe의 자의식의 작품의 전반부에 다소 과장되게, 반복적으로 드러나는데,²⁾ 이 점에는 종교적 틀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작가의 뜻이 들어있는 듯이 보인다. 또한, Starr이 지적하듯이,³⁾ 섬에서의 Crusoe가 내면의 평화를 찾아서 ‘Homo-Economicus’로서의 모습을 보여나가는 데에는 열병을 앓은 후의 ‘깨달음’ 혹은 ‘회개’가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작품 전반부의 틀은 ‘아버지의 뜻을 저버린 죄인으로서의 출항과, 섬에 내팽개쳐짐으로써 받은 벌, 그리고 ‘회개’로 인한 죄의 사면과 행복한 결말’이라는 성서적 암시를 얻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후반부로 가면서 이러한 ‘신의 섭리’라는 틀이 깨어질 뿐 아니라, 그 깨어짐 자체가 보다 커다란 다른 틀의 일부가 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Thus my Fear banish'd all my religeous Hope; all that former Confidence in God which was founded upon such wonderful Experience as I had had of his Goodness, now vanished, as if he that had fed me by Miracle hitherto, could not preserve by his Power the Provision which he

1) 예를 들면, M.E. Novak, "Robinson Crusoe and Economic Utopia," *Kenyon Review* 25 (1963), 490면.

2) 예를 들면, Daniel Defoe, *Robinson Crusoe* (N.Y.: W.W. Norton, 1975), 8면, 13면, 14면, 17면 등.

3) George A. Starr, "Robinson Crusoe and the Myth of Mammon," in *Robinson Crusoe*, by D. Defoe, (N.Y.: W.W. Norton, 1975), 364면.

had made for me by his Goodness.⁴⁾

‘발자국’의 발견이 불러일으킨 공포는 Crusoe의 이제까지의 신앙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면서, Crusoe로 하여금 ‘목장을 부수고 곡식을 뽑아버리는’⁵⁾ 등 섬에 적힌 ‘자신의 존재의 흔적을 지워버리려는’ 생각⁶⁾에 몰두하게 하고, 실제로 담을 하나 더 쌓고 가축우리를 옮기는 등 자신을 은폐하려는 노력을 더욱 기울이게 한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신의 섭리’라는 틀의 무용성을 확인시켜 주는 한편, Crusoe 스스로 부과한 ‘섭리’의 틀과 진정한 Crusoe의 자아간에 괴리가 있음을 엿보게 한다. 이는 작품의 전체적 이해에 심리적 관점이 필요함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Crusoe는 그 자신의 설명에만 의지하여 이해하기에는 좀 더 복잡한 인물이 된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Cottom이나 Maddox의 글은 참고할 만하다. Cottom의 글은 Crusoe의 고립성 및 자아확인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면서, 그 극복을 위해 Crusoe가 ‘他者の 위협’을 가상할 수밖에 없고 또 ‘섬의 지배’라는 허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⁷⁾ 그리고 Maddox도 이와 유사하게, 자신의 경험을 ‘해석’함으로써 그것을 ‘지배’하고(혹은 그것에 ‘틀을 부과’하고) 그것을 ‘행동’의 원리로 옮기는 Crusoe의 모습을 작품의 핵심적인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⁸⁾ Crusoe의 행적은 ‘무력하고 죄많은 아들로부터 힘있는 아버지로’의 이행과정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곧 ‘복종으로부터 지배로, 무지로부터 소지한 해석의 지배자로’의 전이라는 것이다.⁹⁾

이러한 해석들은 짐짓 감추어져 있는 Crusoe의 심리적 메카니즘을 들추어내는 공로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추상적 문제로 환원시켜 그 결과의 현실성을 물어버린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결국 Crusoe가 이루는 ‘지배’의 모습은 식민지 총독이라는 실질적 지위의 획득이며 제국주의의 실현이라는 현실적 의미를 얻는 것임을 작가 Defoe는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In this voyage I visited my new Collony in the Island,.... Besides this, I shar'd the Island into Parts with'em, reserv'd to my self the Property of the whole, but gave them such Parts

4) Daniel Defoe, 앞의 책, 122면, 앞으로 본문 인용시에는 주를 달지 않고 면수만 밝힘.

5) 같은 책, 125면.

6) T.M. Kavanagh, "Unraveling Robinson: The Divided Self in Defoe's *Robinson Crusoe*," *Texas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20(1978), 426면.

7) Daniel Cottom, "*Robinson Crusoe*: The Empire's New Clothes," *The Eighteenth Century* 22 (1981), 284면.

"While it is no small part of the novel's charm to read it as a manual for survival, then, its interest should only be augmented when one sees that the survival with which it is most deeply concerned is the survival of imperial fantasy."

8) J.H. Maddox Jr., "Interpreter Crusoe," *ELH* 51:1 (Spring 1984), 34-35면.

"Crusoe does not simply read his experience as a given, satisfying text; he compulsively projects a form into it. The third of Crusoe's forms of interpretation is something of a restatement of the second, but in terms of action. As a character, ...his very living, indeed, is an act of interpretation."

9) 같은 글, 36면.

"Crusoe's progress in the novel from helpless and sinful son to all-powerful father is a progression from submission to dominance and from ignorance to omnipotent interpretive mastery."

respectively as they agreed on; and having settled all things with them, and engaged them not to leave the Place, I left them there. (236-237면)

이들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심리적 관점을 도입하는 Pearlman에 이르면 '위험한 권위주의자이면서 식민주의자'¹⁰⁾로서의 Crusoe의 문제점이 논의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는 Crusoe의 식민주의를 주로 심리적 원인을 가진 것으로만 파악함으로써, 작품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바인 경제적 의미와 식민주의와의 연결을 배제시키는 허점을 보인다.

유아적 미숙함과 권위주의가 착종된 성격의 Crusoe는 Friday의 지배 및 다른 식민종들의 살육을 통해 성격적 결함에 기인한 파괴적 본성을 드러낸다는 것으로,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고 있다.

A weak individual, unable to succeed in his own country, of restless and unstable character, moves to an exotic locale where the technological advantage of his civilization gives him immediate superiority over the indigenous population. There he exploits the land...and makes instruments... of selected converts. He despises the natives, but is also terrified of them, and is prepared to justify massacre if he can fantasize a threat to himself.¹¹⁾

'to justify massacre if he can fantasize a threat to himself'라는 표현 등에서 Crusoe의 심리구조가 갖는 이중성 및 그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비교적 명확히 짚어내고 있으나, 'a weak individual, unable to succeed...'云云에서 보듯, Crusoe가 드러내는 식민주의의 문제는 성격적 결함이 있는 한 개인의 문제로 치환되는 것이다.

Crusoe의 행적이 한 개인의 것인 동시에 여러가지 면에서 상징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비평가들도 지적하는 바이지만,¹²⁾ 다른 무엇보다도 Crusoe가 섬에서 보여주는 '경제인(Homo-Economicus)'과 '공작인(Homo-Faber)'으로서의 면모 및 Brasil에서의 자본축적이 당시의 증상주의 이념의 체현이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Crusoe가 소유하게 되는 '섬=식민지'는 이러한 '재산'으로서의 의미를 '정치·군사적 지배'라는 의미와 함께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Crusoe가 결국 '식민주의자'라면 그의 심리적 기제는 성격 결함이 있는 일개인의 그것으로 파악될 일이 아니라, 곧 '제국주의'의 그것으로 이해됨이 합당하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Robinson Crusoe*를 Defoe의 경제적 주장을 담은 일종의 propaganda로 읽은 비평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Novak은 작가 Defoe가 자신이 옹호하는 Locke의 경제 이론들, 즉 노동가치론과 효용가치론 등을 주장하기 위해 '섬'에서의

10) E. Pearlman: "Robinson Crusoe and the Cannibals," Mosaic 10 (1976), 54면.

"...he is also an authoritarian of a dangerous kind and an unredeemed, uncivilized colonist."

11) 같은 글, 54-55면.

12) 예를 들면, P. Macherey, *A Theory of Literary Product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8), 247면.

"Defoe seems indeed to have concentrated on seeking out forms of expression which would bestow specific symbols on the world he knew."

또는 D. Cottom, 앞의 글, 277면.

"Since the island is located at the beginning of his narrative...the enclosed and self-sufficient economy... becomes symbolic of a radical alienation, separation, or discontinuity...."

Crusoe를 형상화하였다고 보고 있다.¹³⁾ 물론, Crusoe가 자칭하는 kingship 등은 Locke의 이론과 어긋나는 점이지만, Crusoe의 ‘섬’은 대체로 Defoe가 생각하는 ‘Economic Utopia’였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Downie는 영국 무역업의 쇠퇴를 막기위한 방책으로 Defoe가 식민주의를 적극 옹호했고, 그러한 주장을 담은 ‘imperialistic propaganda’가 *Robinson Crusoe*라고 주장한다.¹⁴⁾

이 두 글은 모두 *Robinson Crusoe*의 의미를 경제적인 면으로만 한정시켜 바라보았다는 약점을 지니고는 있지만, 경제적 의미가 작품의 근간임을 환기시키는 점을 사줄 만하다. 또한, Defoe가 Crusoe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 혹은 분명히 긍정적 모습이 아닌데도 비판해주시 않는 부분에 대한 참고 자료로서도 유효한 점이 있는 것 같다.

이제까지의 논의 결과, *Robinson Crusoe*에서 중요한 점은 전체적 행적을 낳는 원리로서의 Crusoe의 심리적 특성이며, 그것이 ‘식민주의’로 귀결됨으로써 종국적으로 시사하는 바에 대한 조명이라고 생각된다. 이리할진대, Crusoe가 상륙하는 ‘섬’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가 먼저 살펴져야 하며, 또한 섬생활에서의 일대 전기이자 ‘식민주의’의 출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발자국’의 대면 및 그 이후의 식민 과정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추상화시켜 볼 때, Crusoe라는 ‘self’가 ‘섬’이라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발자국’이라는 ‘other’를 만나는 이야기인 *Robinson Crusoe*가 어떠한 경로로 그 이면에 18세기의 중상주의 이데올로기 및 그것에 기반한 팽창주의, 제국주의의 propaganda를 담게 되는지?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짚어보기로 한다.

Ⅲ. ‘섬’과 ‘발자국’이 제기하는 문제들

‘섬’은 *Robinson Crusoe*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도대체 왜 Robinson Crusoe는 섬에 상륙하는가? Novak은 Crusoe가 섬에 상륙하는 이유를 일련의 경제적 주장을 펼치기 위한 Defoe의 의도와 관련지어 보고 있다. “Essay upon Projects”에서 Defoe는 “필요성만이 나태함을 물리치고 사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¹⁵⁾했는데, 바로 자신이 옹호하는 ‘노동의 가치, 효용의 가치’ 등을 설파하기 위해서, 곧 ‘필연적으로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Defoe는 ‘섬’을 상정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필연성에 기반하여, 유용한 노동에 의해 물건을 만들어나가고 경제성에 입각하여 농사를 짓는 등의 Crusoe의 모습을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바는 섬에서의 Crusoe가 Defoe의 어떤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존재라는 부분이다. 그 의도가 Novak의 지적처럼 경제정책의 propaganda라는 선에서 단순히 한정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물론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Crusoe가 이루는 ‘성공’의 의미, 곧 ‘식민주의자’로 가기 위한 준비단계로서의 ‘섬’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다시 말하면, Crusoe의 섬생활은 어쩔 수 없이 ‘강요된’ 환경 하에서의 Crusoe의 불가피한 대처라는 外皮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식민주의자’라는 결말을 가져오기 위해 작가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13) M.E. Novak, 앞의 글, 474-490면.

14) J.A. Downie, “Defoe, Imperialism, and the Travel Books Reconsidered,” Yearbook of English Studies 13 (1983), 66-83면.

15) M.E. Novak, 앞의 글, 475면.

“It was necessity alone, Defoe argued, which destroyed sloth and gave birth to society.”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Crusoe가 상륙한 섬은 문명에 접한 적이 없는 'nature' 상태로 상정되는데, Crusoe에게 있어 그것의 의미는 문명과 전혀 다른 존재라기보다 문명 以前의 상태, 곧 비유컨대 '문명의 옷을 입혀야 비로소 완전해지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은 빵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쓸 때의 Crusoe의 생각으로부터 잘 전달된다.

I that was reduced to a mere State of Nature, found this to my daily Discouragement, and was made more and more sensible of it every Hour.... (93면)

'nature'를 대하는 Crusoe의 이와 같은 태도는 사물을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한 이기주의자의 태도이자, 타방을 늘상 자기문명의 관점에서 '이해' 혹은 '개발(exploitation)' 함으로써 자기문명화하려는 서구문명 전체의 팽창주의적, 제국주의적 심리의 상징으로도 읽힌다. 식인종의 존재 및 Crusoe에 의한 그들의 지배와 '교화'는 이러한 Crusoe적 시각이 상징적으로 담보하는 의미를 작가가 잘 알고 있었다는 증표일 것이다.

이러한 결말을 향하는 작가의 '준비'로는 Crusoe의 심리가 보이는 특성들을 들 수 있겠다. 먼저 두드러지는 것은 모든 경험을 對像化하여, 곧 하나의 '문제'로 환치하여 '풀어나가는' 태도이다. 해야 할 일을 조목조목 정리하기를 좋아한다든지 도표를 만드는 것, 상황을 다시 요약해서 설명하기를 즐기는 것 등은 그러한 태도를 엿보게 하는 예들이다.¹⁶⁾ Crusoe의 '이성의 신뢰'는 다음 예문을 통해 적절히 드러난다.

...and here I must needs observe, that as Reason is the Substance and Original of the Mathematicks so by stating and squaring every thing by Reason, and by making the most rational Judgment of things, every Man may be in time Master of every mechanik Art. (55면)

그런데 중요한 점은, Crusoe에게 있어서 '이성'은 단지 수학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감정적, 윤리적 제 문제를 모두 포괄한 상태에서의 해결 원리라는 것이다. 연장의 부족을 아쉬워하는 다음 부분에서 이러한 점이 암시되는 면이 있다.

I was at a great loss about my Tools;...this cost me as much Thought as a Statesman would have bestowed upon a grand Point of Politicks, or a Judge upon the Life and Death of a Man. (66면)

연장의 부족함을 고민하는 Crusoe의 모습이 정치적 정책 결정, 사법적 판결에의 고민과 병치되었다는 것은, Crusoe식 태도가 이들 문제들을 같은 차원에 놓고 같은 원리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임을 은연중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 여기에 물론 감정적 문제도 예외일 수 없다. Xury를 팔 때의 Crusoe가 그의 자유를 파는 데 대한 거리낌을 쉽게 '해결'하는 모습도 이러한 Crusoe의 심리적 특성을 보여주는 한 예인 것이다.

...he offer'd me also 60 Pieces of Eight more for my Boy Xury, which I was loath to take, ...I was very loath to sell the poor Boy's Liberty,.... However when I let him know my Reason, he...offer'd me this Medium, that he would give the Boy an Obligation to set him free in ten Years, if he turn'd Christian; upon this, and Xury saying he was willing to go to him, I let the Captain have him. (29면)

16) Defoe, 앞의 책, 42-43면, 53면, 84면, 96-97면, 119면 등 참조.

이렇듯,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Crusoe의 태도는, Maddox가 이야기하는 대로, 자신이 맞닥뜨리는 경험을 철저하게 자기 식으로 ‘이해’, 곧 ‘소유’하고자 하는 ‘mastery에의 욕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Maddox는 섬에 상륙하던 첫날에 대한 기술이 세 번 반복됨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반복이 ‘공포에의 지배를 응시하고자 하는 욕망’¹⁷⁾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첫 진술은 ‘살아남의 기쁨’을 먼저 토론한 뒤에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두번째 진술인 가상의 일기는 고통과 공포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세번째 진술인 진짜 일기에서는 고통과 공포가 이야기되지만 보다 정리된 상태로, 말하자면 이성적으로, 기술되고 있는 것이다.¹⁸⁾ 이는 섬생활에서 앞으로 맞닥뜨릴 위험들에의 공포가 Crusoe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정리’되고 있다는 뜻이며, 이러한 ‘정리’ 혹은 ‘경험에 틀을 부과’하는 작업¹⁹⁾은 그로써 경험을 ‘이해=지배’하려는 시도에 다름아닌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경험의 ‘지배’와 언어의 관련성은 작품내의 다른 중요 부분들에서도 나타나므로 주목을 요한다.

Crusoe의 내면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동 중의 하나가 ‘이성애의 신뢰’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아직 정복(?)되지 못한 未知의 경험에 대한 ‘공포’ 및 그로 인한 자신의 ‘은폐 심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공포’를 이기기 위한 ‘틀의 부과’는 크게 두 차례에 걸쳐 시도된다. 우선, 상륙 첫날의 반복 記述에서 보이는 ‘공포감’의 극복시도로서 ‘신의 섭리(Providence)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의 난파가 그의 ‘원죄’, 곧 아버지의 충고를 저버리고 출항한 데 대한 신의 벌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신의 은총’에 대한 강조²⁰⁾는 자신이 처한 환경을 가장 ‘유리한(profitable)’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회개’가 ‘꿈’에 의해 선도된 것이라는 점과 그 깨달음의 내용을 Crusoe가 반복적으로 되뇌이고 있다는 점²¹⁾은 특기할 만하다.

...In this second Sleep, I had this terrible Dream.

...all that I can say I understood, was this, ‘Seeing all these Things have not brought thee to Repentance, now thou shalt die’: At which Words, I thought he lifted up the Spear that was in his Hand, to kill me. (70년)

뒤집어 보면,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어떤 ‘틀’을 자꾸 반복함으로써 기정사실화하고자 하는 모습이요, 또한 그 틀이 타자가 부과한 틀이라는, 곧 꿈속의 어떤 존재가 그에게 ‘강요’함으로 해서 이루어진 ‘회개’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아닐까? ‘섬’에의 난파 자체가 Crusoe의 행적을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당위적인 것으로 그리기 위한 작가의 장치였다면, 경험을 ‘지배’하기 위한 Crusoe의 전략도 ‘꿈’이라는 무의식성을 이용, ‘저절로 그렇게 된 것’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언어의 반복으로 인한 ‘은폐’효과도 가

17) Maddox, 앞의 글, 36년.

“...this desire to gaze upon his mastery of terror...”

18) Defoe, 앞의 책, 38-40년, 56-57년 참조.

19) Maddox, 앞의 글, 34-35년, 또한이 글의 註 8번 참조.

20) 예를 들면, 구원의 다층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병으로부터의 구원’과 ‘죄로부터의 구원’을 감사하는 것. Defoe, 앞의 책, 76-77년 참조.

21) 아버지의 충고를 저버렸던 데 대한 기억(같은 책 70, 72, 73년)과 회개(71, 72년)와 기도(70, 75, 77년)의 반복됨.

세하고 있는 섬이다.

이러한 Crusoe의 현실 이해의 ‘틀’의 허구성을 폭로해준다는 점에서 ‘발자국’의 발견은 중대한 사건이다. ‘낯선 발자국 하나’에 대한 Crusoe의 공포심은 그야말로 극단적이다.

...But after innumerable fluttering Thoughts, like a Man perfectly confus'd and out of my self, I came Home to my Fortification, not feeling, as we say, the Ground I went on, but terrify'd to the last Degree, looking behind me at every two or three Steps, mistaking every Bush and Tree, and fancying every Stump at a Distance to be a Man;... (121면)

그가 이해하지 못할 未知의, 따라서 공포의 대상인 ‘발자국’은 Crusoe 나름대로의 섬에 대한 이해, 혹은 Crusoe의 무의식적인 섬에 대한 ‘지배’를 산산이 부서뜨렸던 것이다. 경험을 스스로 이해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공포가 이처럼 크다는 것은, 그의 경험 지배 욕구가 그만큼 큰 것이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제 이러한 ‘발자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곧 Crusoe의 두번째 ‘틀 만들기’ 작업이기도 할 것이다. 이 두번째 틀은 공공연히 명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작가가 그것을 깨뜨려서 Crusoe의 작위성을 폭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처음 것보다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또 한 편으로는 그것을 ‘만드는’ Crusoe의 교활함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면도 있다.

굳이 명시하자면, ‘발자국’에 대한 Crusoe의 대책은 ‘식인종들은 나의 안전을 위협하는 敵이므로 죽여버려야 한다’는 것과, ‘아니, 그들 중 몇 명을 이용하여 이 섬을 빠져나갈 방편으로 삼아야겠다’는 영리한 계산일 것이다. 이러한 ‘해결 방안’의 성립도 마찬가지로 ‘꿈’에 의해서 저절로, 혹은 ‘신의 섭리’나 기타 다른 사람들의 ‘自意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는 결국 대상을 지배하고 그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 내려는 Crusoe식의 ‘이성적인’ 상황조정 및 그와 결부된 자신의 ‘은혜’가 드러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식인종 살육에의 최대 ‘문제점’은 그 정당성의 확보로서, 이 점에 대해 작가가 비중을 두어 묘사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d I began with cooler and calmer Thoughts to consider what it was I was going to engage in. What Authority, or Call I had, to pretend to be Judge and Executioner upon these Men as Criminals,.... (134면)

‘그들이 내게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라는 Crusoe의 정당한 반성²²⁾은 무의식중에 기독교도들의 부정적 모습까지도 내비치는 데에 이른다.

I was certainly in the Wrong in it, that these People were not Murtherers, in the Sense that I had before condemn'd them,... any more than those christians were Murtherers, who often put to Death the Prisoners taken in Battle; or more frequently, upon many Occasions, put whole Troops of Men to the Sword, without giving Quarter, though they threw down their Arms and submitted. (134면)

그러나, Maddox가 적절히 지적하듯이,²³⁾ 잠시 암시되었던 기독교도들의 야만성은 곧이

22) 이러한 반성은 막상 식인종을 공격하기 직전에 또 되풀이되어 나타난다(같은 책, 181면).

23) Maddox, 앞의 글, 38면.

어 ‘스페인인들의 잔학성’이 운위됨으로써 은폐되는 것이다.

That this would justify the Conduct of the Spaniards in all their Barbarities practis'd in America.... (134면)

이제 잔인성은 ‘스페인인들의 것’으로 옮겨간 셈이다.

이러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경험의 해석을 유도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 그리고 반대 사실이 드러났을 때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생각할 줄 모르는 Crusoe의 독단성은 이후 ‘꿈’의 형태를 빌어 나타나는 Crusoe의 ‘해결방식 획득’에서 확인된다. 즉, ‘good cannibal’과 ‘bad cannibal’을 설정함으로써, 혹은 ‘포로로 잡힌 cannibal’과 ‘그를 죽이려는 cannibal’ 사이에 끼어들어 前者를 ‘구출’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바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또 ‘구출’한 cannibal을 ‘지배’함으로써 탈출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Upon this[dream],... I made this Conclusion, that my only Way to go about an Attempt for an Escape, was, if possible, to get a Savage into my Possession; and... it should be one of their Prisoners,... (155면)

Crusoe에 의해 ‘bad cannibal’로 설정당한 쪽에서 보면 여전히 유효한 애초의 반성, 곧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죽이는 일의 부당성은, Crusoe의 자기중심적 논리전개의 궤도에서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고려되지 않는다. 고의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은폐되어 있는 것이다.

‘꿈’의 해결책 제시와, 식인종 살육에의 고민이 반복적으로 진술된다는 점 역시 앞에서 살펴보았던 ‘첫번째 틀’의 경우와 부합되는 점이다. ‘식인종 살육의 부당성’이, 그것을 은폐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Crusoe의 심증을 자꾸만 괴롭히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런데, 식인종의 ‘구출’과정은 ‘첫번째 틀’에서보다 더욱 적극적인 진실 은폐의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Crusoe의 의도적 행위가 모두 ‘신의 섭리’로, 혹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Friday를 구출하는 장면이 우선 시사적이다.

I observ'd, that the two who swam, were yet more than twice as long swimming over the Creek, as the Fellow was, that fled from them; ...that now was my Time to get me a Servant, and perhaps a Companion, or Assistant; and that I was call'd plainly by Providence to save this poor Creature's Life; (158면)

사실은 ‘Servant’인 것을 ‘Companion, or Assistant’라고 고쳐부르는 것도 유의해야 하겠지만, Pearlman의 지적처럼 ‘Friday’가 그다지 위험에 처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 섭리’로 ‘구출’에 임하는 Crusoe의 모습이야말로 ‘우연이 아닌’ 것이다.²⁴⁾

또한, 실제로 Crusoe가 Friday를 지배하게 되는 계기는 ‘총의 위력’에 힘입은 것인데도, Crusoe는 ‘살려준 데 대한 보답으로 Friday가 자청했다’고만 말한다.

...the poor Savage who fled, but had stopp'd; though he saw both his Enemies fallen, and

24) Pearlman, 앞의 글, 53면.

“It cannot be accidental that Friday is in fact on the point of saving his own life when Crusoe intervenes fatally and unnecessarily.”

kill'd, as he thought; yet was so frighted with the Fire, and Noise of my Piece; that he stood Stock still,.... ...I could then perceive that he stood trembling, as if he had been taken Prisoner,.... ...at length he came close to me, and then he kneel'd down again, kiss'd the Ground, and laid his Head upon the Ground, and taking me by the Foot, set my Foot upon his Head; this it seems was in token of swearing to be my Slave for ever;... (158-159면)

그런가 하면, Friday와 함께 식인종들을 공격하고 백인 포로를 구출해 내는 장면에서도, Crusoe는 양심의 거리낌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What call? What Occasion? much less, What Necessity I was in to go and dip my Hands in Blood, to attack People, who had neither done, or intended me any Wrong? (181면)

이러한 망설임은, 사로잡힌 포로가 '백인'이며 '기독교도'임이 강조됨으로써 정당한 '명분 (Necessity)' 아래 수습될 길을 얻는다.

I saw plainly by my Glass, a white man who lay upon the Beach of the Sea, with his Hands and his Feet ty'd... and that he was an 'European,' and had Cloaths on.

...

I had now not a Moment to loose; for nineteen of the dreadful Wretches sat upon the Ground, all close huddled together, and had just sent the other two to butcher the poor 'Christian,'.... (182면)

구출하자마자 그로부터 기독교도임을 확인하는 모습은 이러한 Crusoe의 심리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I lifted him up, and ask'd him in the 'Portuguese' Tongue, What he was? He answered in Latin, 'Christianus'; (183면)

이렇듯, 자기뜻에 맞도록 상황을 조정해 가는 Crusoe의 모습은 우연치 아니하게도 '神'의 모습으로 암시되고,²⁵⁾ 결국 식민지 총독이라는 실질적 지위까지 얻는 것으로 귀결된다.²⁶⁾ 반란선 선원들을 회유하거나 강제로 제압해 가는 과정에서 Crusoe가 '자신의 심부름꾼'으로 위장하는 모습²⁷⁾은, 그러므로, 아주 상징적이다. 또한, 스스로를 '王'으로 인식하는 Crusoe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그의 지배심리를 적절히 표출해 주는 예외의 기능까지도 담당해내고 있는 것이다.²⁸⁾

25) Defoe, 앞의 책, 198면.

26) 같은 책, 208면.

"However, the Captain told him he must lay down his Arms at Discretion, and trust to the governour's Mercy, by which he meant me; for they call'd me Governour."

27) 같은 책, 210면.

"When I shew'd my self to the two Hostages, it was with the Captain, who told them, I was the Person the Governour had order'd to look after them, and that it was the Governour's Pleasure they should not stir any where, but by my Direction; ...so that as we never suffered them to see me as Governour, so I now appear'd as another Person, and spoke of the Governour, the Garrison... and the like, upon all Occasions."

28) 자신을 王으로 지칭하는 Crusoe의 모습은 이전부터도 자주 등장하던 것이다. 같은 책, 101면, 116면 등 참조.

My Island was now peopled, and I thought my self very rich in Subjects; and it was a merry Reflection which I frequently made, How like a King I look'd. (188년)

IV. 결 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Crusoe의 내면에는 대상을 '이해=지배' 하려는 욕구와, 그것이 실패하여 대상이 未知의 상태로 남을 때의 공포가 큰 특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공포의 '지배' 혹은 '해결'을 위한 방책으로 이데올로기적인 '자기 은폐'가 시도됨을 볼 수 있었다. 즉, '꿈'에 의해 이미 정해진 일로, 혹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혹은 상대방에 이익이 되는 일이므로 '해결책'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식의 논리를 의장으로 갖추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리적 메카니즘이 물고 온 '성공', 즉 富와 지위를 획득한 식민주의자로서의 Crusoe를 Defoe는 어떻게 보는 것일까? 온전히 찬탄하며 옹호하는 것일까, 아니면 거리를 두고 비판하는 것일까?

전체적인 골격은, Novak과 Downie가 주장하는 바대로, Defoe가 Crusoe에 찬동했으며 바로 그를 통해 일련의 경제정책들 및 식민주의의 정당성을 설파하고자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섬'은 사실상 식민지 지배를 '필연성'으로부터 출발시키기 위한 장치였으며, 영국에 돌아온 Crusoe가 '저절로' 富者가 되는 것도 Crusoe식의 自發性에의 이데올로기와 상통하는 면모이다. Crusoe는 Defoe가 '바로 이러했으면...' 하고 바랐던 전형적 모험가, 곧 '중상주의자요 식민주의자인 영국인'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Defoe의 입지가 그토록 단순한 것은 아니다. Crusoe로부터 얼마간 떨어져서 그의 심리의 문제성을 던지시 비춘다든지 Crusoe의 독단성이 빛는 오류를 보여줌으로써, 그의 '성공'이 '자기 이익의 추구'라는 토대 위에서, 더구나 그것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의 옷을 입고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Crusoe 스스로 상정했던 '신의 섭리'라는 틀이 깨어짐으로써 Crusoe가 겪는 대단한 공포감에 대해 살펴본 바 있거니와, Defoe가 Crusoe의 이중 심리를 꿰뚫어 보여주고 있다는 또다른 중요한 예로는 '식인종 살육에의 정당성' 문제와 'Friday의 지배' 문제를 들 수 있다.

Friday와의 대화 결과 Crusoe는 사실상 식인종들이 아무 적대관계도 없는 백인들을 잡아먹지는 않으며, 단지 전쟁포로들만을 잡아먹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I ask'd him, How it came to pass they did not kill them and eat them? He said, 'No, they make Brother with them';...And then he added, 'They no eat Mans but when makes the War fight'; that is to say, they never eat any Man but such as come to fight with them, and are taken in Battle. (174년)

여기서 '식인종들의 행위가 기독교도들의 전쟁포로 처형과 마찬가지로 살인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첫 반성이 옳았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그러나 Crusoe는 여전히, 이러한 점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식인종에의 공포'가 얼마나 자의적인 것인가를 Defoe는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또한, Friday가 Crusoe에게 지배되는 계기는 분명 '총'이었는데도, 이후 총쏘는 법을 배운 Friday는 결코 Crusoe에게 저항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I let him into the Mystery, for such it was to him, of Gunpowder, and Bullet, and taught

him how to shoot. (173면)

Friday가 Pearlman의 말대로 'infant'처럼 그려진다²⁹⁾는 단적인 예가 아닐 수 없다. Crusoe의 Friday는 그가 '이러했으면' 하고 바라는 이상적인 원주민의 像인 것이다.

그러나, Friday의 존재가 허구로 돌려질 수만은 없다는 점은 그에 대한 Crusoe의 지배방식의 치밀함에서 발견된다. 처음 言語를 가르침으로써 '지배-종속 관계'를 확립한 이후,³⁰⁾ 종교교육을 통해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부각시키는 것이다.

'You do great deal much good,' says he, 'you teach wild Mans be good sober tame Mans; you tell them know God, pray God, and live new Life.' Alas! Friday, (says I) thou knowest not what thou sayest, I am but an ignorant Man my self. 'Yes, yes,' says he 'you teachee me Good, you teachee them Good.' (176면)

神과 Crusoe는 분명 별개인데도 '神의 선택'을 설파함으로써 덕분에 그 설파자인 Crusoe까지도 저절로 '선한 존재'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은 서구 제국주의가 토착민의 '교화'를 위해 (언어 교육과 함께) 전형적으로 이용했던 수법으로서, 우리에게 낯익은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Defoe가 Crusoe의 '성공'을 옹호한다는 혐의는 있을지언정 그 과정에 이데올로기적 '조작(manipulation)'이 수반됨을 보여준다는 면에서는 Crusoe로부터 작가 Defoe가 거리를 두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Defoe는 '발자국' 사건 이후에 이러한 Crusoe의 '조작'을 표면화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꾸준히 준비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Crusoe에 대한 Defoe의 태도가 애매함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Robinson Crusoe*의 핵심은 작가가 Crusoe를 통해 보여주는 식민주의의 이데올로기 문제에 있다고 보인다. 작가가 곧 Crusoe라는 가정 아래 이 작품을 그저 Crusoe가 이야기하는 대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단순한 식민주의의 propaganda로 읽는다면, 그야말로 단순한 誤讀인 것이다.

References

- Ball, Ian A. "King Crusoe: Locke's Political Theory in *Robinson Crusoe*." *English Studies* 69 (1988):27-36.
- Cottom, Daniel. "*Robinson Crusoe*: The Empire's New Clothes." *The Eighteenth Century* 22 (1981):271-286.
- Downie, J.A. "Defoe, Imperialism, and the Travel Books Reconsidered." *Yearbook of English Studies* 13 (1983):66-83.
- Kavanagh, Thomas M. "Unraveling Robinson: The Divided Self in Defoe's *Robinson Crusoe*." *Texas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20 (1978):416-432.
- Macherey, Pierre. *A Theory of Literary Product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8. pp.240-248.

29) Pearlman, 앞의 글, 43면.

"But Crusoe understates, for Friday is dealt with not as a child, but as an infant."

30) Defoe, 앞의 책, 161면.

"...and first I made him know his Name should be 'Friday'...; I likewise taught him to say 'Master,' and then let him know, that this was to be my Name;...."

Maddox Jr., J.H. "Interpreter Crusoe." *ELH* 51:1 (Spring 1984):33-52.

Novak, Maximillian E. "Robinson Crusoe and Economic Utopia." *Kenyon Review* 25 (1963):474-490.

Pearlman, E. "Robinson Crusoe and the Cannibals." *Mosaic* 10 (1976):39-55.

Starr, G.A. "*Robinson Crusoe* and the Myth of Mammon." in *Robinson Crusoe*. By Daniel Defoe.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75. pp.357-364.